



#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담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 (다해)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당 : 147    파견 : 493

###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104, 1. 24, 29-30, 31, 34)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까.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 ◎ Lord, send out your Spirit, and renew the face of the earth. (Psalm 104:1, 24, 29-30, 31, 34)
- Bless the LORD, O my soul! O LORD, my God, you are great indeed! How manifold are your works, O LORD! the earth is full of your creatures; ◎
- May the glory of the LORD endure forever; may the LORD be glad in his works! Pleasing to him be my theme; I will be glad in the LORD. ◎
- If you take away their breath, they perish and return to their dust. When you send forth your spirit, they are created, and you renew the face of the earth. ◎

## 거룩한 공간

자연의 공간에는 방향이 있다. 방향은 혼돈이 아닌 질서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생활도 뜻있게 세워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건설하고 형성하고 주거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초자연의 공간, 거룩한 공간도 제 나름의 질서가 있다. 그것은 신비에 입각한 하나의 질서이다.

성당은 서에서 동으로 해뜨는 곳을 향해 짓는 법이다.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세계의 태양이다. 그리고 그의 궤도는 거룩한 공간, 영생을 향해 바로 세워진 모든 집의 질서를 이룬다. 방향의 셋째 축은 상하로 뻗는다. 사제가 제물을 준비할 때에 성반과 성작을 위로 들어올린다. 그것은 하느님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지성하신 분은 높은 데”에 머무시는 까닭이다. 기도자도 이 “깊고 그윽한 곳에서” 눈과 손을 들어 “거룩한 하늘”로 올린다. 서품식이나 축성식에서 주교나 사제가 축복할 때는 무릎 꿇고 있는 자의 머리 위 또는 아래에 놓여 있는 물건 위에 손을 내려 얹는다. 모든 피조물은 “아래”에 있고 축복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아래로 드리우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혼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 리움과 기도와 봉헌의 방향이다. 은총과 성취와 성사의 방향이다.

거룩한 공간의 세 축은 뜨는 해인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잡혀 있다. 첫째로, 신도들은 그 해를 바라보고, 그 해에서 부터는 하느님 광명의 빛살이 우리 마음 안에 비친다. 이것이 영혼의 장엄한 동향이며 하느님 내림의 축이다. 다음은 북에서 남으로 뻗는 축이 또 있다. 이것은 어둠이 하느님 말씀에서 비롯하는 빛을 바라보는 방향이다. 그 빛은 불타는 마음에서 일어 우리를 따듯이 비취준다. 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축은 영혼의 그리움과 기도와 봉헌의 움직임이 깊고 그윽한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으로 이끌어 올려준다. 이에 응하여 하느님은 성총과 축복과 성사로 성취를 내리신다.

**▶ 성령강림대축일 미사**

일시 : 6월 8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한대만 있음)

**▶ 45주년 본당의 날 행사**

백삼위 한인성당은 현재 토랜스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변화 속에서 기쁨과 도전, 갈등과 치유를 경험하며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사제, 수도자, 그리고 신자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당의 날'을 계기로 우리 본당은 진정한 성령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6월 8일 성령강림대축일을 '본당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여,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시 : 6월 8일(성령강림대축일), 오후 12시 - 4시

장소 : 친교장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 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 (날짜변경)**

본당의 날(6월 8일)을 맞이하여 신자들의 예술작품(서예, 그림 등)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전시회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작품들도 환영합니다.

신청마감 : 6월 8일(주일)

제출일자 : 6월 14일(토), 오전 10시

제출장소 : 강당

전시기간 : 6월 15일(주일) - 29일(주일)

Reception : 6월 15일(주일) 오후 1시 - 3시, 강당

문의 : 이명렬 라파엘 ☎ 310-749-0278

**▶ 25-26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안내**

등록기간 : 8월 3일(주일) - 17일(주일)

등록시간 : 오전 9시 30분 가족미사 후 - 오전 11시

등록장소 : 주일학교 교무실 (직접 등록만 가능)

등록요건 : 꾸준한 미사참석, 학부모 주일학교 봉사

\* 개학일 : 8월 24일(주일)

문의 : 교장 송현지 레이첼 ☎ 310-658-4489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12,315.00	강경예	강영미	강인모	고천용	권태만	금동군	김 욱
주일헌금 \$ 2,888.00	김관기	김교복	김금자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감사헌금 \$ 650.00	김여순	김영재	김옥희	김윤진	김은주	김종렬	김주량
미사예물 \$ 2,360.00	김태은	김현숙	남성철	남혜원	문성길	박운모	박인식
합 계 \$ 18,213.00	박정자	박준범	방정복	배난군	변복순	서용숙	송슬기
	송현지	신동윤	오명섭	오세원	오영섭	위진록	유경자
	유기성	윤화경	윤희동	이계욱	이동군	이상청	이성구
	이영석	이은애	이정미	이정훈	이태환	이행자	임연조
	장영우	정규숙	정기은	정명모	정종미	조영우	주영애
	최미열	최민아	최성은	최성자	최영순	한영분	한창주
	현석주	김정옥	맹승우	엄세종	이상청	황정은	